김석환 "나를 찾고 돌아왔다"

김석환

KIA 기대주 성적부진 2군으로 퓨처스리그 4할대 맹타 롯데와 경기 앞서 외야수 콜업

KIA 타이거즈의 '차세대 거포' 김석환이 '나'를 찾고 돌아왔다.

KIA는 17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외야수 김석환을 콜업했다. 5월 2일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15일 만의 복귀다.

김석환은 시즌 전 KIA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 가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워'를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었고, 시범경기에서도 0.310의 타율과 함께 2개의 홈런도 기록하면서 개막전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4월이었다. 같은 달 26일 KT전에서 홈런은 기록했지만 52타수 9안타, 타율 0.173에 그쳤다.

팀 타선의 동반 침체로 마음이 급해지면서 '김석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김석환은 지난 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퓨처스리그에서 칼을 갈았다.

6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다시 실전에 돌입한 김석환은 두 경기 연속 3안타를 날리는 등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15일 LG전 멀티히트까지 29타수 14안타, 0.483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며 1군 콜업을 받았다.

김석환은 "나를 찾는 시간이 됐다"고 지난 보름을 이야기했다.

김석환은 "내려가서 해보니 1군에 있을 때 조급했던 것 같다. 타격폼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안 좋아진 게 아닌데 내 스윙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조급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 되더라도 쭉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다"고 언급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을 가다듬은 시간, 자신감을 더한 시간이기도 했다.

김석환은 "코치님들도 전력 분석팀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하셨다. 티가 났던 것 같다(웃음)"며 "시범경기 때 영상을 많이 봤다. 작년 치는 것도 보고, 전력 분석 코치님하고 지난 캠프 때 찍은 영상도 봤는데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마인드를 바꿨다. 코치님들도 '스윙은 문제 없다, 조급해하지 말고 네 스윙해라. 좋은 스윙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 내색하지 말고 경기하라'는 등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성적'이 아닌 '자신의 것'을 찾는 데 집중한 게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김석환은 "2군에서 처음 게임할 때 코치님들이 안타 치네 못 치네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타석에 들어가서 자신 있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라고 당부하셨다. 기술적인 면보다는 자신 있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합나가니까 결과도 좋았던 것 같다. 물론 투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스윙을 하니까 아웃될 때 되더라도 내 타구가 나왔다"며 "시즌 초반에는 팀이 이겨야 하니까 출루하자, 컨택하자 그런 것에 집중했다. 그렇게 치려다 보니까 내 스윙도 제대로 못 했다. 내 것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본 김석환은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김석환'의 야구를 할 생각이다.

그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느낌이다. 내 야구를 하자는 생각이 가장 컸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야구를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블랙 타이거즈 데이' 22일 챔필서 NC와 경기 '검정 호랑이해' 이벤트

KIA타이거즈가 임인년(壬寅年) '검정 호랑이해'와 창단 4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데이를 연다.

KIA는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블랙 타이거즈 데이'를 열고 특별 제작한 유니폼(사진)을 입는다.

특별 유니폼 왼 어깨에 호랑이 얼굴을 프린팅해 강인함과 야구 '명가(名家)'의 자부심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날 시구는 KIA 열혈팬인 가수 이채연이 담당한다.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 멤버로 데뷔한 이채연은 지난해 여성 댄스 크루서바이벌 '스트릿우먼 파이터'에 '원트' 소속으로 참가하는 등 '열정 캐릭터'로 사랑을받고 있다.

이채연은 클리닝 타임 축하 공연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날 입장 관중에게 클래퍼를 선착순 1만개 선물한다. 경기 전 정해영의 사인회도 진행된다. 사인회 참가 신청은 KIA 타이거즈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KIA는 20일에는 선수단 용품 공식 후원사인 '디아도라'의 스폰서데이도 연다.

디아도라는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야구팬을 대상으로 경기 중 전광판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디아도라 의류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날 시구는 디아도라의 전속 모델이자 세계적인 모델 배윤영이 맡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스널의 골키퍼 아론 램스데일이 17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1-2022 EPL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실점한 뒤 망연자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널 자멸…뉴캐슬에 0-2 완패 토트넘, 최종전 비겨도 챔스 간다

아스널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의 고비에서 연패에 빠지며 손흥민(30)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아스널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1-2022 EPL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나설 수 있는 마지노선인 정규리그 4위를 놓고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아스널은 13일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0-3으로 완패해 승점 1 차이의 추격을 허용했다.

이어 15일엔 토트넘이 번리를 1-0으로 제압, 승점 68을 쌓아 아스널(승점 66)을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이겨야만 4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아스널은 또 한 번 패배를 떠안아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채 5위에 머물렀다.

이제 한 경기만 남긴 상황에서 두 팀의 격차가 승점 2로 유지돼 토트넘이 한결 유리한 입장에서 23일 시즌 최종전을 맞이하게 됐다.

토트넘은 최하위(승점 22) 노리치 시티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아스널은 16위(승점 36) 에버턴과 맞붙는다.

토트넘은 노리치 시티와 비기기만 해도 UCL 출전권을 가져갈 수 있다.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와 비기고 아스널이 에버턴을 꺾으면 두 팀이 승점 69로 같아지지만, 토트넘(+24)이 골 득실에서 아스널(+9)을 크게 앞서고 있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스널로선 일단 에버턴을 잡고, 노리치 시티가 토트넘을 꺾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4위 쟁탈전의 분수령이었던 이날 아스널은 후반 10분 수비수 벤저민 화이트의 자책골로 끌려다녔고, 후반 40분 브루누 기마랑이스에게 쐐기 골까지 얻어맞고 무너졌다.

한편 최근 선두권 팀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에 연패를 당했던 뉴캐슬은 3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며 12위(승점 46)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맨유 레전드 네빌 "EPL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

"모두가 손흥민을 좋아하고 세계 어느 팀에서도 뛸 수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해설자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이 2021-2022시즌 EPL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30·토트넘·사진)을 호명했다.

네빌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의 축구 전문 프로그램인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 출연해 올해 EPL 최고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

네빌은 "모두가 손흥민을 좋아하고, 세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며 "손흥민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 중인 무함마드 살라(리버풀)보다 지원이 부족한 팀에서 뛰고 있는데도 단 한 골만 뒤진 상황이라며 살라가 아닌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PL 37라운드 번리전까지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21골 7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다. 22골을 넣은 살라에 이어 득점 2위다.

함께 출연한 리버풀 출신의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거는 올해의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를 뽑았지만, 올 시즌 베스트 11에는 손흥민의 이름을 올려뒀다.

두 출연진 모두 4-3-3 포메이션에 맞춰 올 시즌 11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왼쪽 공격수 자리는 손흥민의 차지였다.

둘 다 중앙 공격수 자리에는 손흥민과 짝을 이룬 토트넘의 간판 해리 케인을,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는 득점왕 경쟁자 살라를 뽑았다.

또 더브라위너,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버질 판데이크, 알리송 베케르(이상 리버풀) 선정에도 두 해설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연합뉴스

'홈 9연승' 광주FC 15라운드 베스트 팀

안산전 결승골 허율 MVP

허율

'홈 9연승'을 달린 광주FC가 15라운드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7일 1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장식한 허율이 MVP의 영예를 안았고 2-0 승리를 합작한 박한빈과 안영규는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의 홈 9연승(FA컵 포함), 리그 9경기 연속 무패와 4연승이 기록된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베스트팀 역시 광주의 차지가 됐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8분 터진 허율의 시즌 2호골과 후반 41분에 기록된 하승운의 시즌 마수걸이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박한빈은 중원에서 허율에게 롱패스를 하면서 도움을 올렸고, '캡틴' 안영규는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지휘했다.

전남드래곤즈의 외국인 공격수 플라나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플라나는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34분 임찬울의 패스를 받아 시즌 4호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플라나의 선제골로 리드는 잡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부산 드로젝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11

▲MVP: 허율(광주) ▲FW: 허율, 플라나(전남) ▲MF: 박한빈(광주), 레안드로(대전), 황기욱(안양), 백성동(안양) ▲DF: 안영규(광주), 주현우(안양), 연제민(안양), 이준재(경남) ▲GK: 최철원(부천) ▲베스트 매치: 광주(2) vs (0)안산 ▲베스트 팀 : 광주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